

전북대 김혜진 박사과정생, 우수포스터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혜진 박사과정생(항공 우주공학과, 지도교수 조해성)이 최근 여수에서 열린 '2023년도 한국멀티스케일학회 심포지엄'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김 박사과정생의 연구는 복합재료의 미시역학적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것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남원 산내초·중 총동창회, 희망 나눔캠페인 동참

남원시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망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산내면 산내초·중학교 총동창회(회장 최재식)에서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남원경찰서, 승진 임용식·퇴임식 가저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최근 승진임용식 및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에서는 경장 이주환이 경사로, 순경 박철홍이 경장으로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퇴임 경찰관에는 경정 정종택의 명예퇴임, 경감 강승만, 김규주, 양원영의 정년 퇴임식 행사를 가졌다.

군정 현안 적극 추진·성과 인정

장수군, 4개 부서 혁신군정상 시상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종무식에서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4개 부서에 2023년 4분기 장수군 혁신군정상을 시상했다.



군은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조성을 위해 2022년 3분기부터 '혁신군정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4분기에는 군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한 4개 부서를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했다.

최우수상에는 농촌지원과 스마트팜팀, 우수상에는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 건설교통과 도시팀이 선정됐다.

농촌지원과 스마트팜팀은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설계 타당성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한 세부내역 검토와 지역 및 작물에 맞는 마감재 변경 및 부서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42억원의 추가지출을 절감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은 과태료환수 독립 영급 수령과 관련해 독립의 경우 영급 수령을 위해서는 영문 서식의 생명 확인서에 민원 담당 부서의 확인이 필요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 속에서 관련 부처 및 타 시군 사례 조사 및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규정 사각지대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며 민원인 불편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생경제과 청년미래팀은 올 한해 청년 동아리 지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전북예비 청년 마을 만들

기 사업, 청년도약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특히 사업 추진 시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게 사업 방향을 전환해 청년들의 재치있는 아이디어로 장수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동반 성장을 도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건설교통과 도시팀은 도시재생 활성과 계획 수립 용역 및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장계 지역의 상권활성화, 정주여건개선, 생활인구증대 등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 및 상징성을 가진 레드푸드를 활용한 특화사업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8억을 확보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혁신군정상' 수상부서에는 격려금과 함께 성과 가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최훈식 군수는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도도 혁신군정상 등을 통한 성과 창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김제 부랑면 주민자치위, 행복나눔 쌀 2470kg 모아

김제시 부랑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운용)는 '행복나눔 쌀 모으기' 행사를 통해 사회단체와 주민들에게서 기탁 받은 백미 2,470kg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독거노인 등 총 161세대와 경로당 29개소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부터 4주간 '행복 나눔 쌀 모으기' 운동으로 추진되었으며 기탁받은 쌀을 사회단체 임원과 마을 이장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고 난방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김운용 주민자치위원장은 "쌀 모으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사회단체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기부의 손길이 널리 뻗어나가 소외되는 이웃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군 산림조합, 장학금 1000만원 전달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지난해 12월 29일 진안군 산림조합(조합장 송운섭)에서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서 송운섭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일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학금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 산림조합은 2022년 산림 경영지도사업 우수 조합에 선정되는 등 진안군 산림조합원과 임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융사업과 지도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실 관촌면 농촌지도자회, 성금 70만원 기탁

관촌면 농촌지도자회(회장 박삼근)가 최근 관촌면사무소를 찾아 면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쌀달라며 성금 70만원을 기탁했다.

농촌지도자회는 결성 이후 학교 및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에 여러 차례 장학금을 기부하고, 태풍 피해 때도 임실군에 성금을 기탁하는 등 농업인들과 아픔을 같이하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체로 귀감을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에 (재)임실군 애향장학회에 100만원을 기탁하고,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까지 기탁하여 우수 인재 양성 및 이웃사랑에 연이어 앞장서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죽향동 지사협, 착한 가게 10곳 현판 증정

남원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복지허브와 연합모금사업에 참여한 사업체 10곳에 착한 가게 현판을 증정했다.

증정 가게는 명문제과, 반아돌술밥, 동네숯불갈비, 이서진공인증개사, 가족식품, 장터국밥, 서울왕족발, 롯데리아 남원, 한우회관, 갯마을 등이다.

복지허브와 연합모금사업은 협의체가 작은 복지관이 되어 주민 주도로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모인 후원 금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으로 어려울 때는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발로 뛰는 복지마을 만들기를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현재까지 1인 1개와 나눔 63명, 착한 가게 18곳, 착한 가정 6명, 지정기탁 16명 등 103명이 참여하여 4,020만원이 지역 사회복지에 쓰였다.

특화사업은 서로 이음/희망 드림(DREAM)/서로 돌봄 사



업 중 △5월, 케이션 드림 사업(돌봄 사업) △보금자리 가꿈 지원 사업(주거 지원 사업) △꿈 키움 지원 사업(아동·청소년 학업 지원 사업) △시(詩)가 있는 마을(마을가꾸기) △사랑의 김장 나눔(돌봄 사업) △생계/난방유 지원 사업(긴급생계지원) 등 복지·보건·의료·주거·돌봄·교육 등에 권익지원으로 환원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columns for regional offices: 전주지사, 임실지사, 남원지사, 김제지사, 순창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진안지사, 정읍지사, 완주지사, 무주지사, 호남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사, 옥산지사, 사당지사, 부안지사, 고창지사, 임실지사, 정읍지사, 완주지사, 무주지사, 호남지사, 익산지사, 군산지사, 옥산지사, 사당지사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the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 featuring the historical Gwansan Seodang Main Office (구 군산세관 본관). The ad includes the slogan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Jeollabuk-do) and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Symbol of Exploitation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It describes the building as a national heritage site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 built in 1908, used for tax collection, and later as a museum. The ad also mentions '전주매일 캠페인' (Jeonju Maeil Campaign) and '구 군산세관 본관' (Gwansan Seodang Main Office).